

당신들의天國

李清俊長篇小說
○文學과知性社

문학과지성 소설 명작선

이 소설 총서는
초판 간행 이후 시간의 벽을 넘어 끊임없이
독자와 평자들의 애호와 평가를 끌어 열고 있는
말의 바른 의미에서의 '스테디 셀러'들을
충실한 원본 검증을 거쳐 다시 찍어낸,
새로운 감각의 판형과 새로운 깊이의 해설로
그 의미를 더욱 풍요롭게 만든,
우리 시대 명작 소설들이 펼치는
문학적 축제의 자리입니다.

당신들의 천국

이청준

노태우 대통령 헌정 기념사업회
주최 | 보림출판

이청준의 소설은 우리 사회의 현실을
파헤쳐 보여주는 냉철한 통찰력과
깊은 문학적 소양을 지니고 있다.
이 책은 그의 대표작 중 하나인
『당신들의 천국』을 소개하는
책이다. 이 책은 1980년대
한국 사회의 현실을 파헤쳐
보여주는 냉철한 통찰력과
깊은 문학적 소양을 지니고 있다.

출판사 | 보림출판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1

전화 | 02-3463-1111

팩스 | 02-3463-1112

1980-1981년 문학대상을 수상한 이청준의 대표작

『당신들의 천국』은 1980년 문학대상을 수상한

이청준의 대표작이다.

이 책은 1980년대 한국 사회의 현실을 파헤쳐

보여주는 냉철한 통찰력과 깊은 문학적 소양을 지니고 있다.

ISBN 89-320-0842-0

문학과지성사

1996

문학과지성 소설 명작선 2
당신들의 천국

초판발행/ 1976년 5월 25일
23쇄발행/ 1984년 7월 30일
재판발행/ 1984년 9월 25일
41쇄발행/ 1993년 5월 30일
3판발행/ 1993년 7월 20일
16쇄발행/ 1996년 9월 5일
4판발행/ 1996년 11월 5일
21쇄발행/ 2003년 5월 30일

지은이/ 이청준

펴낸이/ 채호기

펴낸곳/ (주)문학과지성사

등록번호/ 제10-918호(1993. 12. 16)

서울 마포구 서교동 363-12호 무원빌딩(121-838)

편집: 338)7224~5 FAX 323)4180

영업: 338)7222~3 FAX 338)7221

홈페이지/ www.moonji.com

© 이청준, 1996. Printed in Seoul, Korea

ISBN 89-320-0842-6

- * 잘못된 책은 바꾸어드립니다.
- * 지은이와 협의하여 인지는 생략합니다.
- * 이 책의 판권은 지은이와 문학과지성사에 있습니다.
양측의 서면 동의 없는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

당신들의 천국

개판본을 다시 꾸미면서

『당신들의 천국』은 1974년과 75년간에 씌어졌고, 그 이듬해인 76년 5월에 문학과지성사에 의해 단행본 초간이 이루어졌다. 지금부터 불과 8, 9년 전의 일이다. 그런데 그 짧은 세월간에 우리말이나 문장 감각, 나아가서는 소설 자체가 많은 변화와 발전을 겪어온 것 같아 보인다. 당시로선 으레 당연시돼오던 종조 조판을 횡조 조판으로 바꿔야 하게 된 저간의 사정이 그 증거의 하나려니와, 차제에 누권(陋卷)을 일별해보니 저자 자신에게도 낡고 불만스러운 대목이 곳곳에 눈에 띈다. 그렇다고 작품을 요즘 감각과 욕심대로 맘껏 수정을 가하거나 다시 쓸 수는 없는 일, 어법과 어순의 변화에 따른 사소한 어미나 토씨, 혹은 부적절한 접속사와 부사 정도만을 최소한도로 수정·첨삭·변치(變置)하였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이야기의 진행상 명백한 비약과 실수로 여겨지는 두세 곳 오문들을 새로운 문장으로 바꿔 연결하였다. 발표된 작품은 낡아가는 대로 그것대로의 나이를 먹어가게 해두는 것이 옳을 듯싶어서다.

하기야 그리 변변치도 못한 작품, 1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으면 이쯤에서 그만 절판을 해버림도 무방할는지 모른다. 한데도 굳이 이것을 다시 횡조 조판으로 재발간함에는 초간 발행 때와 발행인의 자리를 바꿔 앉은 김병익 외형(畏兄)의 넓은 아량과 각별한 배려의 덕(초간 발행 때도 지리멸렬한 연재본을 모아다 다시 손질하여 책을 묶게

한 것 역시 그의 각별한 배려에서였지만)이 크거니와 작자인 나로서도 여기에 조그만 구실 한 가지는 마련해두는 것이 도리인 듯싶어 본다. 다름아니라 그것은 이 소설의 제목으로 인해서다. 굳이 사족을 더할 바가 없겠지만, 소설의 제목 '당신들의 천국'은 당시 우리의 묵시적 현실 상황과 인간의 기본적 존재 조건들에 상도한 역설적 우의성(寓意性)에 근거한 말이었다. 그러면서 나는 어느 때가 그것이 '우리들의 천국'으로 바뀌어 불러질 때가 오기를 소망했고, 필경은 그 때가 오게 될 것을 확신했다. 그리고 아마도 그때가 오게 되면 '당신들의 천국'이라는 사시적(斜視的) 표현이나 그 책의 존재는 무용지물이 될 것이었다.

그렇다면 과연 이제 우리에게 한 작은 섬의 이름으로 대신해 불렀던 그 '당신들의 천국'을 '우리들의 천국'으로 거침없이 행복하게 바꿔 불러도 좋은 때가 온 것인가. 대답은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각자의 자유이다. 밝혀둘 것은 다만 발행인 김병익형과 나는 대답이 한곳에서 일치하고 있는 것 같다는 점이다. 황조 조판으로 '천국'을 다시 간행하기로 한 것——다행스러워할 일이 못 될지도 모르지만——그것이 우리들의 일치된 대답이자, 황간 본 제작에 대한 저자로서의 구차스런 변명이기도 한 것이다.

1984년 9월

이 청 준

초판 서문

이 책의 이야기들은 많은 부분을 실재의 섬 소록도와 소록도의 일에 관계된 분들에게 취재하였다. 그러나 『당신들의 천국』은 물론 한편의 소설 작품이며, 소설 속의 이야기들 역시 과거나 현재를 막론하고 섬의 실재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그것은 소설 자체의 법칙과 질서에 따라 이야기가 독립적으로 발전한 것이며, 그런 점에서 이 소설의 이야기와 섬의 실재는 전혀 별개의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 인명이나 지명·사건 등이 더러는 사실과 유사하게 그려지고 있는 대목도 있으나, 그 역시 소설의 의도에 알맞게 침삭·변경·재구성된 소설 속의 일부분일 뿐 섬의 실재와는 상관이 없는 것들이다.

나는 지금도 소록도와 소록도 사람들을 위해 성자적인 노력을 바치고 있는 분들의 값진 기여를 알고 있으며, 아직도 그곳에서 불굴의 투병 생활을 계속하고 있는 수많은 원생들의 처지를 알고 있다. 나는 나의 이번 소설이 섬을 위한 그분들의 높은 뜻과 노력에 그리고 원생들의 즐기찬 투병 생활에 어떤 위로와 보탬이 되지 못할망정 행여 다른 바람직스럽지 못한 누를 끼치게 되거나 앓을지가 심히 두렵다. 소설의 이야기와 섬의 실재는 매우 다른 것이라는 그 지극히도 당연한 창작 논리를 여기서 굳이 되풀이하고 있는 것은 그 점을 스스로 경계하기 위해서이다.

마지막으로 이 책을 내기까지 은혜를 입은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연재의 기회를 주신 『신동아』 여러분과 취재를 도와주신 조창원(趙昌源) 전원장님, 그리고 조선일보의 이규태님——특히 한 미숙한 문학 청년에게 제법 야심적인 창작 의욕의 발단을 마련해주었을 뿐 아니라, 소설 곳곳에서 그의 빼어난 취재의 눈을 의지하지 않을 수 없었던 이규태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나의 비길 데 없는 자랑이요 행운이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아무쪼록 책이나 많이 팔려주어서 출판을 맡아주신 정지영 사장님과 멋진 장정을 꾸며주신 오규원형 들께도 조금이나마 신세를 갚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1976. 4. 27.

著 者

차 례

개판본을 다시 꾸미면서/iii

초판 서문/σ

제 I 부

死者의 섬 11

樂園과 銅像 86

제 II 부

出小鹿記 171

背叛 1 250

背叛 2 302

제 III 부

天國의 울타리 347

초판 해설 • 자유와 사랑의 실천적 화해 • 김 현 430

신판 해설 • 모범적 통치에서 상호 인정으로,
상호 인정에서 하나됨으로 • 정과리 447

死者의 섬

1

새 원장이 부임해온 날 밤, 섬에서는 두 사람의 탈출 사고가 있었다.

탈출 사고는 실상 새 원장에 대한 우연찮은 부임 선물이었다.

새 원장은 부임 인사를 하지 않았다. 탈출 사고의 경위부터 조사하기 시작했다.

병원에 새 원장이 부임해왔다.

혁명이 있고 나서 병원은 한동안 원장이 없이 운영되어오고 있었다. 김정일(金政一) 의료부장이 원장을 대신하여 두 달 가까이 병원을 이끌어오고 있었다. 한여름 복더위에 시달리던 섬 거리가 시원한 바닷바람에 식어가고 있던 8월 하순 어느 날 저녁, 그러다가 문득 현역 의무 장교 한 사람이 이 섬 병원의 새 원장으로 부임을 해온 것이다.

조백헌(趙白憲) 대령.

햇볕에 그을어서라기보다 피부 색깔이 원래 좀 그래 보이는 거무

튀튀한 얼굴에, 여느 사람들에게서보다도 푸른색 유니폼이 훨씬 시원스럽게 어울려 보이는 이 장신의 현역 군인 원장은 이날 저녁 그의 보좌관 한 사람과 섬 위로 첫발을 올려딛기가 무섭게 벌써 심상찮은 기질을 엿보이고 있었다.

“저 사람들 다 뭐요?”

“웬 자동차 다 끌고 나왔소?”

선창까지 마중나와 있는 병원 직원들과 자동차를 보고는 못마땅한 듯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어대고 있었다. 영접 인사나 자동차는 끝내 거들떠보지도 않고 의료부장 한 사람의 안내를 받아 저벅저벅 병원 지대로 걸어 올라가고 있는 그의 걸음걸이 또한 무뚝뚝한 관서 사투리의 억양이 조금씩 섞여나오는 말투만큼이나 통명스러워 보였다.

어딘지 만만치가 않아 보이는 원장의 첫인상이었다.

한데 그 새 원장은 병원 관사에서 하룻밤을 쉬고 난 다음날 아침 첫 출근을 하고 나서도 부임 인사를 하지 않았다. 그건 물론 간밤의 탈출 사고가 원인이었다. 하지만 그건 관례상 새 원장이 알은체를 하고 나설 일이 아니었다. 부임 인사도 치르기 전에 일어난 사고에 대해 그가 무슨 책임을 느끼거나 수습을 서두르고 나설 필요는 없었다. 사고의 뒷마무리는 의료부장이나 과장급 선에서 적당히 사무 절차나 취해놓으면 그만이었다. 원장은 나중에 보고나 받고 지나가면 될 일이었다.

그러나 그는 그렇지 않았다.

부임 인사도 치르지 않은 원장에게 사고 보고를 낸 것이 지나친 일이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일은 어차피 그렇게 되어지게 마련이었다. 원장 출근 전에 벌써 지도소(병사 지대의 치안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옛 순시소의 개칭)로부터 사고 보고가 병원 본부까지 들어와 있었다. 보건과장 이상욱(李相旭)이 신생리(新生里) 지도 분소로부터 사고 보고를 받아놓고 있었다. 신생리 남독신사(男獨身舍) 원생

두 사람이 밤새 마을을 빠져나가 바다를 건너갔다는 것이었다. 알만한 일이었다.

뒤늦게 출근한 의료부장이나 다른 간부 직원들은 새 원장이 부임 인사나 치른 다음으로 보고를 미루자고 했다.

“우리끼리 우선 뒷수습을 지어놓고 보고를 나중에 드리도록 합시다.”

하지만 보건과장 이상욱이 그걸 반대했다. 탈출 사고는 원장이 새로 부임해올 때마다 환자들 가운데서 잊지 않고 꼭꼭 마련해 바치는 첫 부임 선물이었다. 흐지부지 뭉개고 넘어갈 일이 아니었다. 무엇보다도 이 첫번 부임 선물을 대하는 원장의 반응이 보고 싶었다.

“감출 필요는 없을 줄 압니다.”

“감추자는 게 아니라, 오늘은 원생들을 집합시켜서 취임 인사도 치르셔야 할 테니까 그런 다음에나……”

“있는 대로 보여드립니다.”

“이번 일이 이과장의 소관 사항인 줄은 알아요. 하지만 좀더 생각을 해보는 게 좋겠소.”

작달막한 키에 성격이 지나치게 꼼꼼스런 이 피부과 전문의는 도대체 말썽이라곤 싫어했다. 원장이 공석중인 지난 몇 달 동안도 원장을 대신하여 그는 환자 치료와 원생 후생 사업 같은 일에는 누구보다 열성적인 데가 있었으나, 말썽이라면 도대체 건디지를 못하는 위인이었다.

상욱은 그만 입을 다물고 말았다. 그는 입을 다문 채 원장의 출근을 기다렸다. 2백여 명 본부 직원들과 함께 회의실에 모여앉아 원장의 출근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도 그는 끝내 의료부장의 충고에는 승복할 생각이 없었다.

8시 50분쯤, 원장이 마침내 서무과장의 안내를 받으며(라기보다는 뚱뚱한 서무과장이 오히려 헐떡헐떡 그를 뒤쫓아오고 있는 꼴이었지

만) 성큼성큼 2층 그의 원장실로 올라오고 있었다. 의료부장을 비롯
한 간부 직원 몇 사람이 원장 부속실로 가서 원장의 첫 출근을 맞이
했다.

그런데 그때 원장의 첫마디가 상욱에겐 더없이 안성맞춤이었다.
“밤새 별일 없었소?”

새 원장의 첫날 출근 인사치고는 싱겁기 짝이 없는 소리였다. 제
복을 말끔히 새로 다려입고 허리에는 권총까지 매달고 나왔을망정,
병원 사람들과는 한동안 낮이 익숙해진 사람의 그것처럼 대범스런
인사말이었다. 그 싱거운 듯하면서도 얼마간은 조금스런 데가 있는
원장의 첫마디는 가벼운 긴장 속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던 부속실 사
람들을 뜻밖에 당황하게 했다.

의료부장 김정일이 열결에 흘끗 이상욱 보건과장을 건너다보았다.
상욱은 그 의료부장의 눈길은 아랑곳할 기색이 아니었다.

“보고드릴 말씀이……”

상욱은 이미 등을 돌리고 원장실로 들어서고 있는 조원장의 발길
을 끌어세우고 있었다.

“본부 직원 전원을 회의실에 집합시켜놓았습니다.”

돌아서는 원장 앞으로 의료부장이 얼핏 상욱을 가로막고 나섰다.
하지만 원장은 그 의료부장의 말에는 별로 귀를 기울이지 않는 눈치
였다.

“당신이 보고할 일이라는 건 뭐요?”

똑바로 그를 쳐다보고 서 있는 상욱의 눈길에서 어떤 심상찮은 기
미를 엿본 모양이었다. 재촉하듯 상욱을 마주 짚어보고 서 있었다.

상욱은 불시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부속실 사람들의 시선이
온통 그 상욱에게로 집중되고 있었다. 그런 때 그는 그런 버릇이 있
었다. 기억도 할 수 없을 만큼 어린 시절부터 있어온 버릇이었다. 어
린 시절부터 그는 자신이 사람들의 시선에 얹히는 것을 그렇게 싫어

했다. 싫어했다기보다 두려워했다. 그런 시선 앞에선 자기도 모르게 가슴이 덜컥덜컥 내려앉곤 했다. 그리고 한번 그런 시선을 의식하기 시작하면 며칠이고 어떤 괴로운 환각 때문에 견딜 수 없도록 시달림을 당할 때가 많았다. 방안에 혼자 있을 때마다 그의 등뒤 어딘가서 숨을 죽인 채 까맣게 그를 노려보고 있는 눈동자의 환각을 떨어버릴 수가 없었다.

상욱은 등골에서 땀이 솟고 있었다. 이제 와선 어쩔 수가 없었다. 원장이 한 번 더 그를 다그쳐왔다.

“따로 보고할 것 없이 예서 지금 말해보오.”

“어젯밤 탈출 사고가 있었습니다.”

“뭐라구?”

상욱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원장의 두 눈썹이 불쑥 곤두섰다.

“탈출 사고라니, 누가 이 섬을 도망빼나갔단 말요?”

“그런가봅니다. 가끔 있는 사고올습시다만……”

의료부장이 거봐란 듯 상욱을 눈짓으로 눌러놓고는 자기가 대신 말을 가로막고 나섰다. 그러나 원장은 이번에도 의료부장의 설명은 맘에 들질 않은 모양이었다.

“그런가봅니다가 뭐요, 그런가봅니다가. 도망갔으면 도망간 거구 아니면 아니랄 거지. 그래 도대체 어디오? 그자들이 섬을 내빼달아 났다는 데가 말요?”

“신생리라는 마을입니다.”

“동넬 묻고 있는 게 아니오. 그자들이 어디로 해서 어떻게 도망을 뺐나 경위를 묻고 있는 게요.”

“아, 그건 신생리 마을 뒷해안 쪽에 돌뿌리라는 돌출부가 있는데 그곳이 통상 녀석들의 탈출 지점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어디 좀 가봅시다.”

“지금 말씀입니까?”

“당신은 번번이 남의 말을 두 번씩 반복시키는 취미가 있구려.”
“하지만 지금은 병원 직원들이 원장님께 인살 여쭙고자 회의실에
모여 대기중입니다만.”
“상관없소. 갔다 와서 보겠소.”
“그리고 오늘은 원생들도 좀 집합을 해보셔야 할 텐데요.”
“상관없다지 않소. 그건 내가 보고 싶을 때 알아서 볼 테니 당신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의료부장 김정일은 자기도 모르게 부동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 부속실에 서 있던 다른 직원들도 어느새 그 의료부장을 따라 뻗뻗한 부동 자세로 굳어져 있었다. 원장은 자기 방을 들어가보지도 않았다. 부동 자세를 취하고 서 있는 부속실 사람들은 더 이상 쳐다보려고도 하지 않고 몸을 돌이켜세우더니, 생각난 듯 다시 힐끔 뒤를 돌아보고는 거침없이 상옥을 점찍어냈다.

“아마 의료부장은 내 거동이 맘에 들지 않는 모양이니 당신이 안낼
좀 맡아주구려.”

새 원장은 결국 그 탈출 사고가 구실이 되어서 그런 식으로 자신의 부임 인사를 생략한 채 병원 출근 첫날을 보내게 된 것이었다.

그건 좀 희귀한 일이었다.

2

이유야 어쨌든 새 원장이 부임 첫날 자신의 부임 인사를 치르지 않은 것은 이 섬 병원에서는 좀 희귀한 일이 아니었다. 원장이 새로 바뀌어올 때마다 한차례씩 가져보는 희망이었지만, 새 원장이 부임 인사를 치르지 않는 걸 보면 그는 아마 자신의 동상을 지니지 않은